

들불축제 대면행사 취소·등반 통제

제주시, 다음달 8~14일 새별오름에서 행사 개최 '관람객 1일 1000명' 계획 철회하고 프로그램 축소 축제 하이라이트 불놓기에도 차량 400대만 허용

들불축제 기간 '관람객 1일 1000명'을 받았던 제주시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제주시는 다음달 8일부터 14일까지 새별오름에서 진행되는 '2021년 들불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제주시는 축제 기간 새별오름 트래킹과 버스킹 공연, 도민 노래자랑, 들불 토크쇼 등을 개최하고 관람객도 1일 1000명을 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축제를 강행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당초 계획했던 '대면 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축제 기간 새별오름 등반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다. 새별오름 광장과 주차장 이용도 일부 제한된다.

다만 3월 13일 축제의 백미인 불놓기 행사는 사전예약을 통해 차량 400대가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도 이뤄진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과 행

사 관련 업계를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창작 등 공연 기회가 부족한 예술인으로부터 제안서 공모를 거쳐 총 50편을 선정,

각 50만원씩의 영상제작비를 지원한다. 이중 우수작 10편에 대해서는 별도 일정을 마련해 온라인 공연도 진행한다.

이어 광고업, 음향 장비 대여, 행사 대행업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대해서는 별도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대면 행사를 모두

취소하게 됐다"면서 "예산도 평년의 절반 수준인 8억2000만원 정도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축제 기간에는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주 특산품 온라인 판촉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행사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다음달 8-14일 2021 들불축제가 열리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전경.

강희만기자

조승혁 시흥소방서장, 제주동부서장 발령

제주도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근오)는 지난 22일자로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소방청 대면인실에 있던 박관장 소방령이 소방령으로 승진, 제주본부 예방대응과장으로 취임한다. 또 조승혁(사진) 경기 시흥소방서장이 제주

동부소방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어 허창진·한명수·오정보 소방령은 각각 제주본부 소방교육대팀장, 서귀포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서귀포소방서 현장대응과장으로 전보됐다.

한편 고영국 제주본부 예방대응과장은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으로 전출됐고, 김학근 동부소방서장은 국무조정실로 파견됐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올해는 '수학여행' 갈수 있을까...

도교육청 "작년 못 간 학년 여행 시 경비 지원"

지난해 코로나19로 도내 중·고등학교 수학여행이 전면 취소된 가운데 올해 도내·외 수학여행이 정상 운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주의, 경계 단계일 경우 소규모(100명 미만) 도내의 수학여행(숙박 가능)이 가능하지만, 심각 단계인 경우 도외 수학여행은 금지된다.

일단 제주교육당국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학년이 올해 수학여행을 갈 경우에도 여행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고교 수학여행비를 비평준화 일반고 전체 학생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해 특성화고 6곳에 이어 올해 비평준화 일반고 14곳 등 20개 고교 학생들이 1인당 연 40만원(실비)을 지원받게 된다. 내년에는 동지역 고등학교까지 확대돼 도

내 모든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비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 학생 1인당 수학여행비 지원금은 초등학교는 6만5000원, 중학교는 35만원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시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올해 수학여행 운영 방식이 달라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시 소규모(100명 미만) 인원을 대상으로 숙박이 가능한 도내·외 수학여행을 할 수 있지만, 1.5단계부터는 숙박이 허용되지 않는다. 도내 수학여행 장소도 도보 중심으로 학교(마을) 주변에서만 가능하다. 2단계에서는 교외 체험활동도 금지돼 교내 프로그램으로만 대체 운영 가능하며, 2.5단계부터는 이 조차도 전면 금지된다.

지난해의 경우 중·고등학교는 전면 취소, 초등학교는 교내 프로그램으로 대체 운영됐다. 오은지기자

제주 관광명소 방문객 '반토막'

작년 성산일출봉·천지연폭포 등 전년비 급감... 주변 상인들 '울상'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제주지역 주요 관광공원의 방문객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 대표 관광지인 성산일출봉의 방문객 수는 100만명 이상 줄어드는 등 도내 주요 관광공원이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제주 관광산업이 큰 침체를 겪고 있다.

23일 제주도세계유산본부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성산일출봉의 방문객 수는 전년인 2019년 (170만 7000명)대비 76% 이상 줄어든 56만 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서귀포시 공영관광지별 관람객 수는 ▷천지연폭포 71만5436명 (2019년 132만3545명) ▷천지연폭

포 27만3679명 (2019년 54만9464명) ▷정방폭포 45만9194명 (2019년 77만8717명) ▷주상절리대 53만 6986명 (2019년 120만 9852명) ▷산방산 37만9224명 (2019년 49만3047명) 등 공영관광지의 방문객 수는 모두 감소했다.

이 같은 도내 공영관광지의 방문객 감소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5인 이상 소모임 집합 금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면서 제주를 찾는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이 사라진데다 지난해 말에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도내 주요 공영관광지가 폐쇄되면서 방문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내 관광지 방문객들의 발길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자 관광지 주변 상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산방산 주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관광객이 크게 줄었고, 이는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 더 막막하고 두렵다"고 토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수학여행단과 단체관광객 등의 발길이 끊기면서 도내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측면이 있다"면서 "지난해 제주도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및 사용료를 감면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관광협회가 집계한 관광객 입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총 1023만6445명으로, 전년(1528만6136명) 대비 33% 감소했다. 이태훈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서귀포 홀로사는 노인가구 1만 세대 넘어

지역내 65세 이상 1인 가구 지난해말 기준 1만335세대

서귀포시지역 홀로 사는 노인가구가 1만 세대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지역 내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상 1인 가구는 1만335세대에 이른다. 서귀포시민 수는 19만 220명(내국인 18만2169명, 외국인 8051명)이며 세대 수는 8만5831세대다. 8세대 가운데 1세대는 홀로 사는 노인가구인 셈이다.

읍면동별로는 대정읍(1350세대),

남원읍(1240세대), 성산읍(1132세대), 안덕면(826세대), 표선면(806세대) 등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1인 노인가구가 많았다. 이어 동지역으로는 동홍동(918세대), 중문동(538세대), 대륜동(536세대), 대천동(532세대) 등의 순이다.

한편 시는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르신 돌봄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3~4월 지역 내 만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가구를 방문해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주거상태, 사회관계, 생활여건,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 등 전반적인 상황이다. 백금탁기자

2021 관음사 학년도 불교문화대학 제33기 불교문화대학원 제15기 신입생모집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에서는
2021학년도 불교문화대학 33기,
대학원 15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불교에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불교는 쉽고 재미있습니다.
제주불교문화대학의 문을 열고 들어 오십시오.
선한 벗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관음사
제주 불교 문화 대학(원)

제주불교문화대학 제33기

* 교육과정 : 1학년 2학기제
강의시간 : 매주 목요일 저녁 7:00~9:00

* 교육내용
• 개강일 : 3월 18일(목) 저녁 7:00

1학기	2학기
불교입문 부처님 일대기 예불문 현장학습 수계 및 수련회	불교개론 천수경 야심계 법성계 예불문

• 특강 : 유식학 - 최종남교수(승가대)
제주불교사 - 한금순박사

• 교수진 : 학장스님, 부학장(제량)스님
원일스님, 응진스님, 오성스님
자경스님, 회정스님, 선명스님
정수스님, 정묵스님, 상오스님
제하스님, 제용스님, 관오스님

* 모집정원 : 60명

제주불교문화대학원 제15기

* 교육과정 : 1학년 2학기제

1. 경전연구반
• 강의시간 : 매주 월요일 저녁 7:00~9:00
• 개강일 : 3월 15일(월) 저녁 7:00

1학기	2학기
금강경 우바새계경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 모집정원 : 선착순 30명

2. 전통사경반
• 교육내용 : 관세음보살 42수 사경
• 특강 :
전통사경의 세계 - 김경호(한국사경명장)
행오스님(전통사경연구회장)

• 강의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4시
• 개강일 : 3월 15일(월) 오후 2시
• 모집정원 : 선착순 20명 ** 재료비 별도

* 교육접수 문의 : 제주시 신성로 50 (도남동) 보현사 내 (T. 064-722-6830)

* 입시요강
* 응시자격 : 불자 및 불자가 되고자 하는 분
* 등록금 : 40만원 (교재비 포함)
* 입학식 : 2021년 3월 14일 오후3시 보현사 내 불교대학 강당